

역주 소현심양일기 1

김헌준

주요인물

세자: 소현세자

빈궁

대군: 봉림대군 (소현세자 동생), 심양에 같이 감

대군부인

九王(도르곤): 병자호란에 강화도 공략, 남한산성 공략

용골대 (龍骨大): 병자호란에 공 세움, 대 조선 외교 담당

마부대 (馬夫大): 병자호란에 공 세움, 대 조선 외교 담당

대조: 국왕, 인조

청주: 송덕제, 흥타이지

정축년(丁丑年) (1637)

1월 30일 남한산성을 나와 심양으로 이동 시작

- 청군이 지나는 길에 백성이 두려워 숨음, 세자가 곡식을 주고 안심시킴

- 세자와 九王간에 고기, 쌀, 술 등을 보냄

4월 10일 심양관소에 도착

- 세자는 말을 타고, 빈궁과 대군부인이 가마를 타고 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일행 1백

명과 말 10필 이외에는 모두 줄여 돌려보낼 것을 명받음

윤 4월 3일

- 빈궁이 편지 못해 서울로 사람을 보내 약을 구해오고 인조의 안부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나 거절당함

윤 4월 5일 세자가 황제의 처음 만남 (직접 대화하지는 않음)

5월 16일

- 용골대, 마부대가 황제가 평안병사 유림과 의주부윤 임경업 불렀으나 임경업만 온 것을

“매우 쾌심히”여감을 전함

5월 17일 피로인 (被擄人) 매매

- [피로인: 강화 후 붙잡힌 포로로 서북 변경의 조선인이 많음]

- “피로인 매매를 허락하니 청나라 사람들이 남녀 포로들을 성문 밖에 모아놓았다. 그 수가 수만이나 되는데 혹은 모자가 상봉하고 혹은 형제가 서로 만나 부여잡고 울부짖으니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5월 26일 세자와 대군이 황제를 만나 대화함

5월 28일 용골대가 찾아와 走回人(주회인), 向化人(향화인) 쇄환(刷還)않는 것 불만
- [주회인 - 청에 잡혀 있다가 몰래 조선으로 도망쳐 돌아간 자/향화인 - 女眞인으로 조선에 귀화했던 자]
- 이에 대해, “세자는 마땅히 사람을 보내 대조께 아뢰도록 하십시오”라고 요구

7월 21일 두 박사가 황제의 명으로 蒙書 2권을 가져와 세자와 대군이 배우기를 청함
- “다만 말과 소리가 통하지 않아 갑자기 배워 익힐 수 없으니 먼저 연소한 종관에게 가르친다면 나도 점차 해득하게 될 것이요.”

8월 17일 본국에서 온 주회인/향화인 쇄송 관련 자문에 관한 용골대와 마부대의 힐난
- “물은 배를 싣지만 또한 배를 덮어버릴 수도 있으니 인심의 향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이 두려워서이지 황제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은 아님)
- 계속적인 압박 “황제께서 따로 말씀하신 바가 없으나 우리들이 전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을 맡았으니 혹 이런 일로 해서 틈이 생길까 걱정하여 부득불 임무를 맡아 와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세자께서는 이러한 뜻을 국왕께 아뢰어 알리도록 하십시오.”
- 세자는 왕비의 상을 맞아 돌아갈 것을 요구 - “세자께서는 이곳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림이 옳을 것입니다.”

9월 2일 귀환하는 문제에 췌기를 박음
- “다시는 세자를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마시오.”

9월 5일 두 나라 사이에 서로 혼인하기로 한 약속 (여인을 바치는 일) 촉구
- 용골대 “귀국은 명나라에 조정에 여인을 뽑아 바치는 법규가 있었으니 이번에 이에 따라 하라는 것이요”

9월 9일 세자가 심경을 토로
- “국운이 비색하여 異域에 갇혀 조와 겨와 비린 것으로 주린 창자를 채우며 쓸쓸히 여관에서 지내노라니 종일 탄식이 나오는구나. 오늘이 重陽節이라 지난 날 供進하던 일이 생각난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나도 모르게 목이 맨다. 從官들은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나 위로조차 못하였다.”

10월 2일 흥시 문제, 용골대, 採蓼人에 대해 힐난, 주회인과 향화인 쇄송 문제 압박
- 조선에서 직접 흥시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 “황제는 귀국에게 이미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찌 아들이 새로 나온 과일을 보고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먼저 보낸단 말입니까? 물건이 이미 성실하지 못했으니 물리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 “무릇 사람은 단지 길러주는 은혜를 입기만 해도 부자지간이라고 일컫습니다. 황제께서 국왕에게 죽은 것을 살려주고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 준 은덕이 있는데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국왕은 황제에 대하여 마땅히 음식을 대하면 문득 먼저 생각하고 물건

이 생기면 먼저 바쳐야 할 터인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세자에게 보냈으니, 어찌 그렇게도 성의가 없단 말입니까?”

- 채삼인 관련 “반드시 사람을 보내 그 자들을 조정으로 끌고 가서 조사하여 치죄한 뒤 보고 하십시오”

- 주회인 관련 “대국에서 말하는 바를 하나한 거행한다면 양국에 어찌 곤란한 일이 있겠습니까?”

10월 25일 용골대와 마부대가 여색을 뽑아 바치는 일에 대해 압박

10월 26일 용골대와 마부대가 소를 바치는 일이 대해 압박, 세자 왕비 대상 귀환 요구

무인년 (戊寅年) (1638)

1월 1일 세자와 명 출신 포로 張春의 만남

- 세자 “오랫동안 높은 절개를 우러르면서도 인연이 없어 뵈지 못하던 차에 하늘이 기회를 주어 맑은 모습을 뵈게 되니 다행입니다. 천시와 인사가 이에 이르러 이제야 대인을 뵈는 크게 부끄럽습니다.”

1월 19일 주회인 몇 명이 스스로 나타남을 계기로 쇄송 문제 다시 압박

- 용골대와 마부대 “귀국에서는 별로 께넘치 않고 잡아 보낼 의사도 없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온 것입니다. 전후로 도망쳐 돌아간 인물들도 쇄송한 의사가 없이 줄곧 숨겨 두었으니 이 어찌 황제의 명을 받들어 두 나라가 서로 우호하는 성심이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세자는 산골이 깊어 숨은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우김

1월 21일 조선에서 지어보낸 비문 내용 질타

5월 26일 용골대와 마부대가 시녀의 혼인, 향화인, 주회인 문제 압박

- “용골대와 마부대 두 장군이 재신 박로를 아문으로 불러 시녀의 혼인, 향화인과 도망자 등에 관한 일을 속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데 거의 협박조였다. 이어서 연초에 관한 금법을 어긴 데 대해 성을 내었다.”

6월 5일 용골대 마부대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세자와 독대함

- “귀국의 행위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향화인과 주회인의 쇄송 및 시녀를 뽑아 바치는 일은 산성 아래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거행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우물쭈물 변명만 하면서 일마다 지연시켜 전후로 낭패를 당시킨 것이 실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세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7월 7일 향화인 쇄환 독촉

- 용골대 “옛날 금나라가 요좌(요동)을 차지하고 있다가 망하자 백성들이 동쪽의 조선으로 달

아나 양남(영남과 호남) 지방에 흩어져 살았는데, 전날 찾지 못한 자손이란 이들의 자손을 말할 따름입니다... 만약 남김없이 쇄송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한 사람이 직접 가서 모두 찾아오겠습니다.”

- “우리는 세자께서 여기에 계시므로 모든 일을 친히 왕에게 아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세자가 이곳에서 막아버린 탓임을 알았습니다.”

- “주회인 또한 일일이 쇄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체발이 자라기 전에 나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그치지 않고 성을 내어 큰소리를 지르다가 일어났다.

7월 10일 조선이 陳奏한 자문과 칙서의 초본 (군사 징발에 거부에 관한 내용) 힐난

- 용골대, “이 자문이 매우 마땅치 못하여 감히 황제께 올리지 못하고 말로만 아뢰었습니다. 최정승이 가져간 칙서에 과연 영구히 군사를 징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귀국이 징병령을 거부하고자 하여 이처럼 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만 명의 군사라도 마땅히 동원해야 할 것인데 5천 명의 징발을 거역하려 하다니,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전에 한 약속을 잇는단 말입니까?”

- 세자가 자문에서 인용한 것 중에서 ‘스스로 마땅히 시세를 헤아려야 하니 어찌 매우 어려워하는 것을 강요하겠는가’ 등의 문구를 지적해 보이면서 답하였다. (즉, 시세의 어려움이 매우 심함) “소국이 대국에 대해 한 집안의 부자지간과 같으니, 자식에게 민망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어찌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대인께서 자문을 들어 물으니 나는 부득이 그 자문의 문자를 따라 답했을 뿐입니다. 세자는 본국에서도 문안을 여쭙고 수라를 살피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군사와 국정에 관계된 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신이 이 자리에 있으니 이 일은 사신에게 묻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한참 뒤에 다시 와서 세자, 대군 및 사신, 내관으로 하여금 뜰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황제의 명을 받으라고 하면서,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도 쉽게 말을 잊어보리고 빨리 약속을 배반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7월 11일 군사 징발에 대해 다시 협박, 조선에서의 홍이포 주조 문제

- 용골대, 마부대 “정묘년 이래 국왕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매양 조정 신하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전날의 일은 거울로 삼을 만합니다. 이제 국왕은 필시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을 터이지만 또 朝臣의 말을 들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앞으로 이 때문에 죄를 얻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얻으면 국왕과 조정 신하들이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복과 도망자를 쇄송하는 일은 모두 약조 가운데 언급된 것인데, 아직까지 이행할 뜻이 없고, 세자께서 매양 여기에서 막고 있으니, 이는 세자와 대군이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고, 국왕도 세자와 대군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모두 진심에서 우려난 것이니 세자는 사실로 여겨 국왕께 상세히 통보하여 사사건건 듣고 이행하게 한다면 세자와 대군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으며 왕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장차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세자도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가만히 들으니 귀국에서 홍이포(紅夷砲)를 많이 주조한다니 놀랍고 괴이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째서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조하며, 또 주조하여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세자는 남쪽 (倭) 방어라고 말함

8월 4일 청주가 서행 동행 명령

- 세자, “감히 명령을 좇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몸에 병이 많아 그것이 걱정일 따름입니다.”
- 용골대, 출병이 다가오는데 조선군 소식 없음을 지적

9월 4일 용골대, 마부대 갑자기 관소로 와서 세자 접견

- “조선 군사가 제날짜에 맞춰 오지 못하여 황제께서 대단히 노하시어 마부대 장군으로 하여금 나가서 오고 있는 군사를 쫓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무오년(광해군 10년)에는 명나라의 동원령이 내렸을 때에는 날짜에 맞춰 와서 힘을 합쳐 싸워서 우리 백성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는 나라를 구해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질질 끌면서 약속 날짜를 어리고 도착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 세자, 무오년에는 군사가 잘 갖추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님

11월 28일 대군이 청주를 따라갔다가 왕복 48일만에 돌아옴

기묘년(己卯年) (1639)

1월 26일 용골대가 문학 정뇌경 처리의 문제에 대해 논함

- 친청 인사인 정수경과 김돌시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문할 때 바로 이야기 함
- 세자, “서약은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 세자는 살리고 죽이는 일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국왕께 보고한 다음에 처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월 30일 서행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음

- “세자께서 말을 타는 데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평소 산증을 알고 계심은 황제께서 아시는 바이고 용골대 장군 또한 알고 있습니다.”

4월 18일 정뇌경의 처결

- 재신들이 속전을 내겠다는 말을 비치자, 용골대와 마부대, 그리고 두 역관의 말이 매우 사나웠다.
- 세자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 몸소 가서 몸값을 바칠 테니 풀어달라고 빌기로 하였다.
- 정수경, 김돌시의 만행

9월 6일 청주가 세자에게 유람을 권함

- 세자 “대조께서 미령하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늘 걱정스런 마음 뿐입니다. 어제 연회는 비록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히 물리치지 못했지만, 오늘 홀로 유람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 예부의 관원, “하교하신 뜻은 마땅히 황제께 아될 것이나, 다만 황제께서 이미 세자의 유람을 위하여 쇠고기와 술을 준비하셨으니 결단코 가셔야 합니다.”

10월 11일 세자가 인조의 병환에 대해 묻으려고 하나 친히 오지 못하게 함

10월 12일 세자가 관소를 나가 아문에 가서 직접 청하나 거부

- 용골대와 마부대가 역관을 시켜 “처소가 불편하고 또 그다지 조용하지도 못합니다. 부디 관소로 돌아가시어 재신을 시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세자, “황제께서 지금 사냥을 나가 계시니 두 장군이 아니면 내가 어디에다 이 번민을 호소하겠습니까?... 멀리서 걱정되는 지극한 정을 스스로 누를 수 없어 말미를 받고 달려가 아버지의 병환을 살피는 것이 저의 구구한 바람이니, 원컨대 이 뜻을 황제께 아뢰어 주십시오.”
- 용골대와 마부대가 정명수를 시켜 “누추한 곳에서 오랫동안 옥을 당하고 계시니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속히 수레를 돌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이점 및 감상평

1. 청의 고압적인 태도

- 말에서 내리고, 가마에서 내리게 함 (역관)
- 불모인 세자는 소통의 수단과 겁박의 수단
- 예를 갖추나 실질적으로 압박하거나 거절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예 없음
- 장군들 못지않은 역관들의 태도 (정뇌경 문제에 관한 김돌시, 정수경 등)

2. 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의 요구 거절

- 주회인, 향화인 -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홍시 사건
- 청의 징병 요구 거부
- 국내사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시간 지연, 조선의 상황 등을 언급해 회피
- 세자의 권한이 없음 강조
- 황제가 보낸 서신의 문구 인용해 징병 못하는 이유 반박
- 왕비의 대상, 왕의 병환 등 인지상정을 내세워 돌아가려고 시도

3. 대명 기조의 유지

- 건강을 핑계로 서행에 참여하지 않음
- 장춘과의 만남

4. 기존의 역사적 사실 기초로 한 청의 외교

- 향화인이 왜 생겼고 어떻게 조선에 정착했는가 지적
- 조선이 여색을 명에 바침 예를 들어 청에도 해야 한다고 함
- 조선이 제 시간에 명의 징병 요구 들어줌 근거로 사용해서 오천 군사 보내줄 것 요구